연중 제26주일 강론(2019년 9월 29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10월입니다. 세월 빠르죠? 여름이 어느새 다 지나가고, 낙엽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세월이 막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체리힐 성당에 와서 벌써 세 번째 가을을 맞습니다. 미국에 온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흰머리도 많이 늘었고, 머리 숱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웬 중년 아저씨가 거울에 나타나요. 여기서 청춘 다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사는게 더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여전히 미국 성당 사목은 일이 많고 바쁘고, 또 한국 성당 일도 만만치 않지만, 사는 것은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설가 박경리씨 아시죠?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로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여류 소설가죠. 82세의 나이로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소설가 박경리씨가 노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모진 세월 다 가고, 아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렇게 편안한 것을… 이제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소설가 박완서씨 아십니까? 80년대 한국 여성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주목 받았죠. 80세의 나이로 담낭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분이 노년에 썼던 글 중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서 좋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어서 좋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젊음과 바꾸겠는가!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살아오면서 볼꼴 못볼꼴 충분히 봤다. 한 겹, 두 겹 책임을 벗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음미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 소설도 써지면 쓰겠지만, 안 써져도 그만이다.”

이 두 분은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여류 소설가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두 분은 한적한 시골집에서 조용히 삶을 마감합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을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들이었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옛말에 ‘상선 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은 것’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다투거나 고집부리지 않고, 마치 물 흐르는 것처럼, 순리대로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섭리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사는 길입니다.

고려말, 나웅 선사의 유명한 불교 시가가 있죠. “청산은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 놓고, 성냄도 벗어 놓고, 물 같이 바람 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이 세상에서의 주어진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더러는 짧게 살다가, 더러는 조금 더 길게 살다가 떠나는 인생입니다. 오직 한 번만 살다 가는 인생,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며 사는 인생, 인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이익이나 칭찬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겸허하게 물처럼 살아가는 삶이 참 아름다운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잘 가꾸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꽃과 잡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안쓰는 화분에서 새싹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보고 혹시 꽃이 필까 해서 물을 주고 잘 키웠더니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이건 꽃일까요, 아니면 잡초일까요?

물을 주고 보살피고 기르기 시작하면, 더이상 잡초가 아니고 화초입니다. 저절로 막 자라면 잡초지만, 관심과 정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보살피면 화초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태어나지만,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고 가꾸지 않으면 금세 잡초처럼 볼 품이 없어 집니다.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겸손하게 정성과 사랑으로 잘 가꾸어 나가면 우리 삶도 아름다운 화초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한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면서 지나가지만, 잡초가 무성하도록 방치된 집 정원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쓰레기를 버리고 지나간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사랑과 정성으로 잘 가꾸어갈 때,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화초처럼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많이 할 수록 축복을 많이 받게 되고, 불평을 많이 할 수록 받은 축복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를 많이 할 수록 삶은 행복해 집니다.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남아프리카의 첫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백인 정부에 의해 26년간 감옥살이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독방에서. 그가 출옥할 때 사람들은 그가 아주 허약한 상태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넘어서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냐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느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독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삶은 늘 축복과 행복과 평화가 넘칩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라자로의 이야기. 이 세상에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불리면서 살았던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가난했고 온갖 고생을 다한 거지 라자로는 하늘 나라로 갑니다.

단순히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하고 가난한 사람만 좋아해서 하신 이야기도 아닙니다. 키 포인트는 이겁니다. 부자는 바로 옆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고생을 하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삽니다. 바로 그 집 대문 앞에서 거지 라자로가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도, 그 부자는 그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에만 빠져서,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삽니다.

이 부자는 당시 자기 배만 불리면서 욕심과 고집이 가득차서 불평만 일삼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거지 라자로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억압받으며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자비와 나눔의 실천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에는 모든 것이 뒤바뀐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될 것이다.” 지금 잘났다고 자만하는 사람들나중에 벌받을 것이고, 지금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겁니다.

이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에는, 부자와 가난한 이의 처지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사랑을 나눌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서 벌을 받지만, 살아 생전에 평생을 가난하게 고통받으며 살았던 라자로는 죽어서 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가난한 이들에게 행복을 선언 하시고, 부자들에게 불행을 선언하신 가르침의 연장입니다. 루카 복음 6장 20절-25절 이죠.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집과 불만, 욕심이 가득찬 삶은 결국 불행해 질 것이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삶은 우리를 영원한 평화와 행복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